

복음기도신문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믿음의 고백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해 성도를 일깨우고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한국어판 www.gnpnews.org
 영어판 english.gnpnews.org
 일어판 japan.gnpnews.org
 중어판 china.gnpnews.org

2010. 10. 3 창간

Gospel Prayer Newspaper

2019. 4. 28 ~ 2019. 5. 11 제203호



▶ 헝가리의 굴뚝 빵집

제공: WMM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동유럽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프르델니(Trdelnik)은 사랑받는 대표 길거리 간식이다. 밀가루 반죽을 쇠막대에 감아 구워내 설탕에 굴러먹으면 결대로 찢어지는 맛이 일품이다. 가운데가 비어 있어 굴뚝 빵으로도 불린다.

한 두 평 남짓한 가게에서 만들어내는 굴뚝 빵에는 주인 가족의 행복과 미래와 소망이 담겨있다.

빵을 사려고 줄지어 있는 이들에게도 빵을 나눠먹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추억과 행복이 담겨있다. 하나님은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樂)을 누리게 하신다. 우리가 누리는 행복과 낙(樂),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것임을 열방의 영혼들이 깨닫기를 소망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인지. 그분은 자신의 목숨처럼 사랑하시는 아들을 죄인인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이신, 그런 분이시다.

[GNPNEWS]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한복음 3:16)

“풍성한 대로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한국 선교사 71.3% “재정 부족해도 사역 멈추지 않을 것”

한국 선교사 가운데 재정 부족을 이유로 사역 중단을 고려해 본 적이 없다는 답변이 조사 대상 선교사 273명 중 71.3%를 차지했다고 조사됐다.

한국선교연구원(원장 문상철)은 최근 국내 선교단체의 선교행정가와 개인 선교사를 대상으로 ‘선교비 현황과 모금 활동’ 등에 관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또 선교단체의 경우, 조사 대상의 절반 이상(55.2%)이 연간 예산이 5억 원 이내였으며, 연간 예산이 1000만 달러(110억 원)를 초과하는 단체는 3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에서 소속 선교사가 가장 많은 선교단체는 101개국에서 활동하는 선교사 2549명을 보유한 예장합동측 선교회인 GMS로 밝혀졌다.

또 응답 선교단체의 43.5%가 최근 회계연도의 연간 예산이 줄어들었으며, 연간 예산이 늘어났다고 밝힌 단체는 1/3이하

(29.7%)였다. 향후 5년간 선교 활동을 위한 모금 전망에 대해 비관적인 견해를 밝힌 선교행정가들이 34.6%로 가장 많았으며 29.5%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선교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하며 사람에게 재정을 요청하지 않는 믿음선교의 재정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GNPNEWS]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빌립보서 4:19)

기도 |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을 믿습니다. 선교 현장을 지키는 선교사들의 순종의 걸음을 축복하시고, 주님이 친히 입히고 채우시는 분이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78)

“저는 능력이 안 돼서 교회에 갈 수 없어요”

누구나 기쁜 소식 즉, 복음을 듣기 원한다. 복음을 갈망하는 영혼들을 위해 다양한 믿음의 고백들을 가져다선교회에서 제작한 전도지에서 발췌, 소개한다. <편집자>

“교회에 가려면 그래도 헌금도 좀 해야 하고 내세울 게 있어야 하는데 나같이 초라한 사람이 가진 좀 힘들어요.”

정말 오해이십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형으로 하나님이 지상에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력, 재산, 나이, 명예... 그 어떤 것도 자격요건이 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교회에서 헌금이나 재력, 봉사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

는 행위입니다. 반대로 자기가 초라하다 생각하고 주눅 드는 것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귀한 존재로 생각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기 위해 치르신 값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당신을 지으셨고, 교제와 사랑의 대상으로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배신의 길을 택했습니다. 이쯤 되면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마땅한가요?

우리 인간의 이해로는 배신에 해당하는 벌을 내려 싹 쓸어버려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용서를 택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죄를 허용할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 벌을 내리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단 한 분, 죄 없으신 아들 예수를 당신이 죽어야 할 그 자리로 보내셨고,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형을 감당해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재력, 학력, 외모, 능력 등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당신이 ‘아들 예수의 피로 씻은 사람인가 아닌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이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갈 수 있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이제 오해를 거두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당신을 환영합니다.



일러스트=김경선

[GNPNEWS]

* 복음의소리 316전화

삶이 힘드십니까? 갈급한 마음으로 전화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난 전화는 삼가해 주세요. 신앙 상담전화 ☎ 1670-3160

INSIDE

- 뉴스**
“추방선교사는 새로운 전략군이다” 2면
- 현장 리포트**
EA YLG 2019 “잃어버린 자를 위해 모든 대가를 지불하라!” 3면

- 인터뷰** | 은종숙 집사
“아들의 헌신이 곧 부모의 헌신이었어요” 5면



- 칼럼** |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아무 것도 아니다” 6면

복음과기도미디어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소망하며 미디어로 열방을 섬기는 초교파 선교단체입니다.

“추방선교사는 새로운 전략군이다”

추방은 ‘선교사의 운명’... 현장사령관 경험 살려야



로그미션 제공

최근 중국, 인도 등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들이 이들 지역에서 대거 추방되면서 선교사 추방문제가 한국교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발간하는 계간지 한국선교KMQ는 봄호의 대부분을 선교사 추방을 특집으로 구성, 추방의 의미와 교훈, 추방 사례와 대처방안, 추방선교사 멤버케어, 추방선교사 재배치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시했다.

성남용 편집인은 “초대 교회 때 도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추

방은 일상이었지만, 추방으로 인해 사방에 복음이 전해졌다.”며 “추방은 안타깝고 아쉬운 일이지만 선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인도에서 추방경험이 있는 한 선교사는 ‘추방 및 비자거부를 겪은 선교사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KMQ 기고문을 통해 “2018년 10월부터 ‘추방 및 비자거부, 임시대비를 하신 인도선교사들의 한국모임’이 만들어져 서로 격려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선교단체 로그미션의 김용의 선교사는 “선교사 추방은 모든 선교

사가 피해갈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사령관이나 다름없는 이들이 주저하지 않도록 한국교회가 도와야 한다는 심정으로 이들을 ‘새전략군’으로 명명하며, 이들을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로그미션은 지난 4월초 경기도 남양주 광전선교센터에서 ‘새전략군을 위한 모임’을 가졌다. 이날 김용의 선교사는 “추방선교사와 선교관심자들을 연계해 이들이 새로운 선교동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현재 광전선교센터에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후 2시에 기도모임을 갖고 있으며, 추방선교사들을 위한 미션홈 등을 마련해 연결하고 있다. 문의 ☎ 070-4144-0104.

한편, 김용의 선교사는 “로그미션은 이러한 추방선교사 외에도 가나안성도를 비롯, 삶의 위기를 만나 신앙상담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한 모임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GNPNEWS]

중국 가정교회 신자 60명, 교회 지키려다 무차별 폭행당해

중국 당국이 지난 1월 4일, 허난성 상주시 안평진에 있는 가정교회 참여수교회에 들이닥쳐 신자들을 무차별 폭행하고 교회 물품들을 약탈, 교회 책임자를 15일 동안 구금했다고 이탈리아에 있는 중국 종교자유 전문매체인 비터윈터매거진이 최근 전했다.

당국은 지역 공무원들과 특수 경찰 100여 명을 동원해 교회로 이어지는 교차로들을 봉쇄한 후 교회에 들이닥쳤다. 이들은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현금함을 부수고 수천 위안의 현금을 챙긴 뒤 교회 자금을 더 찾을 수 없자 15명의 신자들을 무차별 폭행했다.

한 목격자에 따르면, 그날 공무원들이 경찰들에게 교회를 기습해 파괴하라고 지시하는 말을 들은 60대의 여신도가 항의의 표시로 경찰차에 자신의 머리를 찧어댔고 경찰은 그녀를 붙잡아 구타해 갈비뼈 골절을 입혔다. 또한 그녀를 돕기 위해 나선 50대 여신도도 구타당해 갈비뼈 2대가 골절됐다. 몇몇 경찰은 신체 일부가 마비된 70대 여신도의 얼굴을 휘갈겼으며, 다른 몇몇 신자들도 무차별적으로 공격해 30분 이상 의식을 잃기도 했다.

한편, 몇몇 신도들과 행인들이 현장 상황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



▶ 참여수교회의 입구를 훔으로 봉쇄한 모습(출처: bitterwinter.org 캡처)

었으나 경찰은 다수의 핸드폰을 압수했다.

경찰은 신자들을 폭행한 뒤, 구덩이를 파고 압수한 성경책과 찬송집을 묻었다. 또한 대형 철문, 에어컨 13대, 오디오 스피커, 세탁기, 컴퓨터, 3만 위안(약 500만 원)짜리 피아노 등 교회 물품 거의 대부분을 압수했다. 또한 교회 책임자를 체포하여 15일간 억류했다. [GNPNEWS]

기독교계, 낙태 부추기는 모자보건법 개정 반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정 이후, 일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낙태죄 폐지를 골자로 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기독교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정미(정의.비례대표)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이 개정법안은 제안이유를 통해 낙태죄를 인공임신중절의 죄로 명칭을 변경하고 임신 22주 이내에 사회·경제적 사유로 낙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특히 14주 이내에는 임신부의 판단

만으로 낙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기독교계는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의 해당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다양한 기독교 단체에서 현재의 결정과 국회의원들의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은 태아의 생명권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우선시한 현재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며, 이는 생명

말살과 사회적 생명경시 풍조의 확산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명진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은 최근 한 기독교언론의 기고문을 통해 “태아들이 분별없이 성을 즐긴 자들의 책임을 안고 죽음에 내몰리는 상황이 됐다.”며 “교회는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으로 낙태와 동성애, 성윤리에 관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깨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GNPNEWS]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4. 10 ~ 4. 20)

복음기도신문은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결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북한 지하교회를 위해 달리는 2019 머스카슬론

북한의 지하교회를 후원하기 위해 개최하는 머스카슬론(Muskathlon) 대회가 오는 10월 9일부터 1박 2일간 열린다. 한국오픈도어와 네덜란드오픈도어, 4M(the 4th Musketeer)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북한 지하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세계 각국의 100여 명이 비무장지대(DMZ) 근처 일대를 달린다.

북한의 지하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이들을 일으키시니 감사합니다. 보이는 상황은 비참해도 우리의 기도로 북한교회가 부흥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의 날이 임하는 그 날의 영광을 북한의 성도들과 함께 맞이할 그 날을 기대합니다.

美 루이지애나서 흑인 교회 상대 연속방화범 체포

미국 루이지애나에서 흑인 교회를 상대로 연이어 방화 범위를 저지른 용의자가 붙잡혔다고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CNN이 전했다. 루이지애나에선 지난달 26일과 이달 2일, 4일 연이은 흑인 교회 화재 사건이 벌어졌다.

자신과 조금이라도 다른 모습을 받아들일 수 없고 주님의 몸 된 교회를 혐오하는 인간의 악함을 공황히 여기시옵소서. 고통을 당한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때 교회가 주님께 받은 은혜대로 용서와 자비를 베푸는 기회로 이 일을 사용하실 것 기대합니다.

캐나다, 최근 3년간 마약관련 사망자 1만 명 넘어

마리화나 사용이 합법인 캐나다에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마약과 관련된 사망자가 무려 1만 300명 넘게 발생했다고 캐나다보건부가 발표했다. 당국은 마약위기대응을 위해 2019년부터 5년 동안 추가로 약 2300만 달러(262억 원)를 투입할 계획이다.

주님, 어디에서도 인간이 만족을 얻지 못해 극단적인 쾌락에 자신을 내던지는 안타까운 일을 목도합니다. 캐나다 땅에 더욱 복음이 선명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교회들을 깨워주시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회복을 오직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내시옵소서.

‘세계성서공회연합회’ 지금까지 692개 언어로 성경 번역

세계성서공회연합회가 지난 한 해 동안 모두 66개의 새로운 언어로 성경을 번역, 지금까지 모두 692개의 언어로 성경 번역을 완료해 전 세계 약 56억 명이 모국어로 된 성경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천국복음이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면 끝이 올 것이라 약속하신 주님. 그 일을 위해 성경을 번역하는 이들을 축복합니다. 아직 성경이 없는 많은 사람들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이 번역자들에게 부어져서 생명의 다해 이 일을 섬기게 하옵소서. [GNPNEWS]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19년 4월 29일 ~ 5월 11일

- 4월 29일~5월 4일 ▶경기 성남 / 선한목자교회(윤**)010-4916-1263, ▶LA / 주님의빛교회(이**)562-335-3638, 4.28(12시)~4.29(24시) ▶대전 서구 / 반석중앙교회(임**)010-2276-8221, 4.29(10~15시) ▶경남 창원 / 진리의빛교회(김**)010-9218-6023, 4.30(11~13시) ▶경기 수원 / 주님의교회(조**)010-5417-9933, 5.3(10~18시) ▶경기 김포 / 꿈꾸는(구 김포전원)교회(강**)010-4128-0448, 5.3(20~22시) ▶광주 동구 / 삶이배인교회(진**)010-4265-0209, 5.3(20~22시) ▶경북 울릉 / 동산감리교회(조**)010-2639-8795, 5.3(10시)~5.4(10시)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황**)010-7766-3100, 5.3(12시)~5.4(12시) ▶대구 중구 / 대구서현교회(권**)010-9275-7843, 5.4(06~12시) ▶서울 관악 / 신림감리교회(강**)010-3751-0493, 그외 7교회 진행중.

- 5월 6일~5월 11일 ▶경기 안산 / 안산은총교회(전**)010-5337-2771, ▶전남 광주 / 십자가사랑교회(김**)010-6280-4419, 5.6(0~24시) ▶경남 울산 / 울산태화교회(박**)010-9326-7767, 5.6(0~24시) ▶전남 전주 / 사랑하는교회(이**)010-7709-0691, 5.6~7.10~11(19~22시) ▶전남 신안 / 탐태중부교회(강**)010-5186-0091, 5.7(0~24시) ▶경기 수원 / 진흥교회(남**)010-8268-6879, 5.7~5.8(10~13시) ▶경기 수원 / 칠보교회(박**)010-6818-2949, 5.7~5.10(10~12시) ▶경기 시흥 / 은혜교회(위**)010-4510-1070, 5.8(06시)~5.9(06시) ▶서울 서초 / 평안교회(송**)010-5791-9197, 5.10(영덕지역연속기도) ▶경북 영덕 / 영덕지역목회자연합(김**)010-5507-0198, 그외 18교회 진행중.

* 더 많은 정보는 기도24365홈페이지(www.prayer24365.org)를 참고해주세요. 느헤미야52기도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은 사전에 연락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느헤미야52기도 문의 ☎ 010-5424-4641)



EA YLG 2019 “잃어버린 자를 위해 모든 대가를 지불하라!”

(동아시아 젊은 리더모임)



East Asia YLG 제공

세계적 복음주의 선교기구인 국제 로잔운동이 주관하는 로잔 ‘동아시아 젊은 리더모임 2019(EA YLG 2019)’가 지난 3월 25일~28일까지 제주성안교회에서 열렸다.

동아시아지역 C국, 홍콩, 몽골, 대만, 일본, 마카오 등 총 8개국 선교사 및 선교현신자 220여 명이 젊은 리더와 멘토, 강사 등의 자격으로

참여한 이번 대회 주제는 ‘복음의 정수’.

일본 로잔위원회 의장인 미사노 리 쿠라사와 목사는 개회, 환영사를 통해 “동아시아의 젊은 세대가 복음의 정수 안에서 하나 되고, 우리의 일터와 사명지에서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 하나님의 왕국이 드러나게 될 것 때문

에 흥분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제로잔운동 총재 마이클 오 목사는 첫째 날 저녁 메시지를 통해 로잔의 비전과 현재까지 교회 역사를 만들어온 만남(I met)들에 대해 나눴다. 또한 국제OMF 패트릭 평 총재는 아침 성경강해를 통해 복음의 권위를 되새겨보고, 완전한 복종의 삶을 선택하며, 교회 안에

서 하나 됨을 추구하고 전 삶의 헌신을 도전하며 ‘H.I.S.(Humility 겸손함, Integrity 진실함, Simplicity 단순함)’의 사람이 되라고 말했다. 또 선한목자교회의 유기성 목사와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도 저녁시간에 뜨거운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21개의 워크숍과 27개의 소그룹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 젊은 리더들은 교회 개척이나 예술, 기술 등 같은 관심분야를 가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자신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 걸어온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멘토들은 1대1 멘토링을 통해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젊은 리더들에게 아낌없이 쏟아 부었다.

홍콩에서 온 토미 소는 “내가 참여한 소그룹과 워크숍은 감동적이었다.”면서 “예술과 문화 분야에 대한 놀라운 아이디어를 들으면서 이것으로 어떻게 청소년들이 주님

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서 발견해 가도록 도울지 생각해보게 되었다.”고 말했다.

2년 전부터 영 리더로 이번 대회를 준비해온 공동 의장인 유지영 자매는 “7개국에서 11명이 참여한 준비팀과 함께 ‘다양함 속의 하나됨’이 실제 되도록 하나님이 이끄셨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동 의장인 코헤이 타케다 목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 됨과 그리스도를 닮은 겸손함을 대회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고 소감을 나눴다.

한편, 시니어 선교사들과 영 리더들의 연합을 위한 모임인 EA YLG는 1987년 싱가포르에서 첫 대회, 2006년에 말레이시아, 2016년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그리고 올해 네 번째로 제주도에서 열렸다. 이 대회에 한국의 젊은 리더로 참여했던 두 젊은 선교사의 참관기를 소개한다.

단순한 순종을 통해 증거되는 복음

작년 10월 경, 동성애를 조장하는 인천시 인권조례에 대한 반대서명을 할 무렵 기도하면서 고난과 박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생겼다. 나와 같은 기독교 청년들, 교회들이 앞으로 부딪치게 되는 주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육체적 박해보다 기독교 세계관이나 가치관을 공격하고 법이라는 제도로부터 박해를 피할 수 없을 거라는 결론에 부딪치며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을 받았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

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EA YLG 2019 대회에 참여하며 박해 받는 교회의 사명이라는 주제 강의를 들었다. 강의를 맡은 중국 선교사님은 10년 전 미국 유학 생활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와 선교사로 헌신했다. 최근 10년 동안 중국 정부는 중국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 그는 “고난은 일상이다. 십자가는 철거되고 교회 건물은 부서지고 중국 성도들은 흩어졌다. 그럼에도 우리에게서 복음이 남았다.”고 말했다.

대회 주 강사인 국제 OMF 디렉터 패트릭 평 선교사님의 메시지도 동일했다. “교회가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교회가 점점 확장된다. 초대교회에서 볼 수 있는 이 패턴에서는 반드시 박해가 따라온다. 그러나 박해는 결코 교회를 죽이지 않는다. 다만, 복음에 대해 식어버린 열정이 교회를 죽일 뿐이다.”

중국의 신실한 성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선교에 대한 비전을 받게 됐다는 말을 들었다. 비로소 오



East Asia YLG 제공

랜 역사를 거쳐 중국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순교했던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 것 같았다. 중국 교회들은 2030년까지 2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꿈을 꾸고 있다. 중국을 통해 일하실 주님이 기대가 되었다.

대단한 소수의 선교 영웅들 때문에 세계 복음화가 이뤄지는 것

이 아니었다. 유명하지도, 전문적이지도 않지만 복음을 위해 고난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 따라 한 걸음씩 단순한 순종을 드리는 사람들로 인해 복음이 증거 되고 있었다. 담대한 겸손(Bold humility)이 내 안에 더욱 소망 되었다.

신단비 선교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인들과 만남의 기쁨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골 1:10)



East Asia YLG 제공

모든 일에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과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하며 이 모임을 위해 기도했

다. 집회 첫 날, 마이클 오 목사님은 로잔대회는 수많은 ‘만남(I met)’을 통해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나에게도 ‘I met’을 통해 만난 이들이 어떻게 부르신 자리에서 모든 일에 주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지 보게 되었다. 대회 둘째 날, 싱가포르 출신 일본 선교사님이 일본을 위한 기도제목과 간증을 나눠 주었다. 일본 교회는 현재 1%의 성장률과 0.5%의 복음주의 기독교인이 있다. 수치는 매우 작고, 숫자로만 봐서는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일본 교회는 작은 거인 같았다. 작은 공동체 안에 복음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기도로 굳게 서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었다.

모에 히가라는 일본 자매의 간증

을 들었다.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한국인 친구를 통해 처음 예수님에 대해 듣게 되었다. 인생의 절망을 맞았을 때, 자신을 만족시켜 줄 것들을 찾아 헤매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녀는 이 복음을 전부로 받아 생명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매였다. 십자가의 복음은 세계 어디에서나 동일한 복음이며, 그 능력은 똑같다는 것에 감격했다.

모임을 마친 후 자매를 찾아가 그 자리에 있어 주어 고맙다며 포옹했다. 나의 이야기도 듣고 싶다는 말에 다음 날 점심시간에 만나 내가 만난 복음을 나눴다. 주님의 은혜를 나누며 밥을 먹다가 서로 수저를 내려놓고 울며 기도하면

서 이런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나누게 되었다. 헤어지기 전, 모에 자매와 서로 기도제목을 나눴다. 그녀는 극단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종이 되고 싶다고 했다. 또 복음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했던 자기의 교만을 회개하며 이제껏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을 바꾸고 싶다고 했다. 이제 겸손하게 주님께 순복하고 싶다고 기도를 요청했다. 지체의 고백이 도전이 되었다. 일본의 1%의 교회 안에 담아 두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한다.

또 그곳에서 대천덕 신부님의 아들 벤 토레이 신부님을 만났다. 한국에 30년 이상을 살며, 한국어로 설교하실 만큼 한국어도 능통한 그분은 한국의 지리, 역사를 나보다 더 꿰뚫고 계셨다. 그분이 내게 들려주는 이야기에 내 모습이 비

취했다. 햇병아리 선교사로 더욱 겸손하게 배울 것을 결단했다. 이곳에서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을 보고, 현장 선교사님들과 조건 없이 연합하며,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쁨으로 누리게 됐다.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인종과 문화, 다양한 기질의,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연합되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었다. 이 하나 됨의 목적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모든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었다.

“잃어버린 자들을 위하여 모든 대가를 지불하라(At all cost for the lost)”는 이 대회의 표어처럼, 동아시아 지역의 부흥, 열방의 부흥도 나는 없고 지체가 살면, 오직 그리스도만 높임을 받도록 연합하면 주님이 오실 것이다. [GNPNEWS]

김은결 선교사

기획 | 창조 이야기(14)

다양한 지구 환경, 대홍수 이후 만들어졌다

본지는 창조론 전문가인 미국 켄트 호빈드 박사의 창조론 강의를 요약, 소개한다. 호빈드 박사의 강의는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흥미롭게 설명하며, 진화론이 거짓 믿음 체계임을 명쾌하게 밝히고 있다. <편집자>

나이아가라 폭포에 대해서 교과서는 이렇게 가르친다. '나이아가라 폭포 위의 바위 층은 거의 9900년 동안 침식되어 왔다.' 그런데 이들은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을까?

모든 폭포의 바위들은 가장자리가 침식되고 반대쪽으로 먹혀 들어간다. 따라서 나이아가라 폭포는 1년에 약 4.7피트(약 1.4m) 정도 뒤로 물러간다.

영국의 지질학자 찰스 라이엘은 1841년에 "나이아가라 폭포가 지금은 여기 있지만, 북쪽으로 11km 떨어진 뉴욕 주 루이스턴의 절벽에서 시작되어 점점 아래로 내려온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폭포가 만년에 걸친 정도의 침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말은 다르다. "나이아가라 폭포는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침식됩니다. 폭풍 한번에도 엄청난 양의 침식이 일어납니다."

찰스 라이엘은 나이아가라 폭포의 침식 양이 1년에 3피트(0.9m)라고 했다. 성경을 매우 싫어했던 그가 의도적으로 성경이 틀렸다는 것을 보이게 하려는 의도였다.

지금의 나이아가라 폭포는 강의 아래쪽 섬으로 갈라지는 곳에 있다. 사실 캐나다 쪽과 미국 쪽, 2개의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 것이다. 찰스 라이엘 시대에 비해 꽤 많이 침식되어 물러나 있다. 교과서는 '이 강의 계곡은 7.5마일(약 12km)을 흐른다. 간단히 계산하면 이 폭포가 9900년 되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는데, 이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만일 지구가 수백만 년 되었다면 왜 지금쯤 더 하류 쪽의 온타리오 호수까지 침식되지 않았을까? 왜 나이아가라 폭포가 바로 이 지점에 있는 것인가?

이런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약 6000년 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었고 약 4400년 전에 지구

적 규모의 대홍수가 있었다. 홍수 물이 갑자기 줄어들 때, 약 20분 만에 그 강의 절반이 쓸려 내려갔다는 것이다. 그러나 홍수를 애써 외면하는 그들은 폭포가 9900년에 걸쳐 형성된 것이라 주장한다. 사실은 4.7피트로 계산해도 8426년이 맞는 계산이다. 숫자의 계산법도 잊어버린 그들에게 홍수를 기억해달라는 것을 바랄 수 없다.

빗물의 30%는 무기 염류를 가지고 바다로 흘러들어간다. 바닷물이 매일 점점 짜진다는 말이다. 지금의 3.6% 염도의 바닷물은 5000년 미만 동안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긴다. 왜 바닷물은 더 짜지지 않은 걸까?

6000년 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었고 4400년 전에 홍수가 있었다. 홍수가 끝난 후 바다는 점차적으로 염도가 높아지게 되었다.

토론에서 한 무신론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 "어떻게 민물고기가 홍수 때 살아남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선생님, 당신은 홍수 물이 소금물이었다고 추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바닷물은 소

금물이니까요." 그렇다. 지금의 바닷물은 염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홍수 동안 바다 대부분이 담수였을 것이다. 그것이 점차로 염도가 높아지게 되어, 현재의 몇몇 동물들은 소금물에 적응해야 했을 것이다. 예를 들면, 현재에는 민물악어도 있고 바다악어도 있는데 아마 그들은 같은 조상으로부터 왔을 것이다.

이 말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건 진화네요." 결코 아니다. 민물악어가 바다악어로 변하는 것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진화 이야기'에 비하면 아주 사소한 '변화'이다. 그들은 바위가 악어로 변했다고 말한다. 그것보다 중대한 변화는 없을 것이다. 앨라배마에 사는 친구 하나가 '블랙 몰리'라는 민물고기를 키우고 있었다. 그리고 수조에 다 조금씩 소금을 넣었더니 2주 만에 해수 물고기로 변했고, 그 물고기들을 다시 민물에 넣었더니 30분 만에 죽었다고 했다. 민물 물고기는 바닷물에 적응할 수 있다.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계속> [GNPNEWS]



▶ 창조과학회 이재만 회장은 그랜드캐년은 노아의 홍수 후 고여 있었던 동쪽과 북쪽의 호수가 연달아 터지면서 그 물줄기로 인해 단번에 형성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것은 파이프하로, 1983년 글렌 캐년 댐(Glen Canyon Dam)의 비상배수구를 처음으로 열었을 때 12m의 배수구의 기반암이 물살로 인해 1분 만에 40m가 침식된 사건(아래)을 대표적 예로 들 수 있다(출처: 이재만 유튜브 강의, onthecolorado.com 캡처)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19. 3. 28 ~ 4. 17 (가나다 순)

개인

강성민 강을수 고은영 권순호 김경선 김선희 김수미 김유남 김정화 노은옥 박성규 안민자 안병윤 안수경 양예숙 유미실 이동희 이 순 이영옥 이준진 이진희 이현희 장근혜 장희숙 정희진 조상국 조형광 차인순 최근희 최정숙 황하임 무명

교회 및 단체
강서침례교회 로이조이커뮤니티교회 목사교회 문광교회 산곡교회 샘물교회 선한목자교회 쉼 신탄테크 양덕원감리교회 은혜신일교회 전주은누리교회 주나임교회 주만교회 죽전교회 평안교회 하원교회 햄시바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7417-0408~10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명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r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이병동(주)아이피디. 2019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 (격주간) 본지는 신윤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선교 통신 | 발리의 블림빙 사리(1)

인도네시아 발리의 기독교 마을, 블림빙 사리에 가다

지난 12월 단기선교팀과 함께 '발리선교 역사탐방'으로 '최초의 발리 기독교 마을'인 '블림빙 사리'에 다녀왔다. 힌두교 문화 한복판에 기독교 마을이 어떻게 생겼을까? 공중에서 보면 십자가 형상이 분명한 마을도로와 마을 곳곳에 새겨진 발리 최초의 기독교 유산을 통해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본다.

1866년 네덜란드 울트렉 선교회는 제이콥 드 브롬(Jacob De Vroom, 1866~1881)과 반 에크(R van Eck, 1868~1875)를 인도네시아 발리로 파송했다. 7년 만에 단 한 사람 개종자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그런데 이 개종자가 어떤 연유 인지는 모르지만 선교사 제이콥을 살해한다. 1881년 7월 8일 제이콥 선교사 살해 사건으로 네덜란드 울트렉 선교회를 비롯한 다른 선교단체들은 모든 선교사들의 소환을 명령했다. 그리고 한동안 발리는 하나님 나라의 지도에서 잊혀진 듯했다. 50년 후인 1931년, 기독교선교사 협의회는 장포항이라는 중국인 전도자를 발리 지역에 파송했다. 그를 통해 초기 발리 선교의 부흥에 빼놓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매일같이 집집마다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던 장포항은 부둣에서



▶ 블림빙 사리의 'PNIEL' 교회(출처: indonesia.travel 캡처)

절망에 빠져있는 주술사 뵘로핑을 만나게 된다. 뵘로핑은 부둣 지역의 대주술사로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자였다. 그러나 그는 원수지간이었던 사누르 지역의 대주술사와 대결에서 패해, 3개월 안에 죽어야 하는 저주를 받고 절망 가운데 연명하고 있었다.

장포항은 뵘로핑에게 물었다. "뭐 안 좋은 일이 있으십니까?" "주술 대결에서 지는 바람에 저주에 걸려 3개월 안에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건 뭐 대단한 일도 아닙니다." "제가 곧 죽게 되는데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여기 당신에게 좋은 소식이 있으니까요. 그 좋은 소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완전한 절망에 빠져 있던 뵘로핑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이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는 3개월 후에도 여전히 살아있었다. 저주에서 살아남은 그를 주목하던 제자들도 그와 더불어 주님을 영접하게 됐다.

또한 장포항 전도자는 새 생명을 얻게 된 뵘로핑에게 놀라운 제안을 했다. 저주를 걸었던 원수에게 찾아가지 않겠냐고 물었다. 그렇게 사누르 지역 대주술사에게 제자들과 함께 찾아가 뵘로핑은 또 한 번의 기적을 맛보게 된다. 원수였던 대주술사와 그의 제자들은 살아있는 뵘로핑을 보자 깜짝 놀라 줄행랑을 쳤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 이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들이 급격히 늘어났다. 단 2년 만에 300여 명의 신자들이 생겨났다.

장포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는 어중간한 타협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가르쳤다. 이러한 가르침으로 인해 초기 발리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속한 지역의 모든 힌두 행사나 재정을 모으는 일에 일절 참여하지 않았다. 결국 기독교인들과 힌두교인들 사이에 큰 분쟁이 일어나고 말았다. 극단적인 힌두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이 소유한 모든 권리를 박탈하였다. 재산을 압수하고 호적에서 지워버렸다. 또 모든 기독교 형식의 예배를 허가하지 않고, 기독교인들의 눈에 물길을 끊어서 농사를 할 수 없게 했다. 기독교인들이 죽을 경우에 매장지를 주지 않고 모든 구매 활동도 제한했다. 기독교인들은 더 이상 그곳에 살 수 없어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길을 떠난다. <계속> [GNPNEWS]

인도네시아 발리=최기석 선교사

* 선교지 소식을 제보해 주세요.

긴급한 열방의 상황이나 숨겨져 있는 부흥의 소식을 알려주세요. 독자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gnpnews@gnmedia.org, ☎ 010-6326-4641, 070-7417-0408

나눔&나눔 삶의 나눔으로 되새겨 보는 하나님의 은혜

“아들의 헌신이 곧 부모의 헌신이었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지하는 은종숙 집사



자신의 떨어진 신발보다 지체의 떨어진 운동화를 새 것으로 바꿔 주는 사람. 소셜미디어(SNS)사용이 어려울 만큼 자신의 낡은 핸드폰은 바꾸지 않으면서도 재정이 필요한 곳엔 아낌없이 흘러보내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갔다. 평범함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는 은종숙 집사의 인생 여정을 들어보았다.

- 처음에 집사님께서 인터뷰에 뜻 응하지 않으셨지요?

“너무 평범한 제가 왜 인터뷰하게 되었는지 주님께 물어봤어요. 주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주님은 평범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을요. 누구나 주님이 부르시면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저처럼 평범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존재감 없는 자도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나누고 싶었어요. 주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헌신하는 자들도 부르시지만, 그냥 저처럼 평범한 사람도 부르시더군요. 몸의 지체가 발도 있고 손도 있고 눈도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를 한 지체로 부르시는 것이죠. 평범한 자를 부르셔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게 주님이셨어요.”

주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한 걸음 걸어가면 그 다음은 주님이 하세요. 제게 필요한 것은 순종이었어요. 부르심에 ‘아멘’으로 나아온 결과, 주님이 주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제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너무 당연하니까 말할 필요도 없이 말예요.”

평범한 자를 부르시는 주님

- 최근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걸음이 있나요?

“4월 초에 N국에서 열린 다음세대 복음학교를 섬기게 되었어요. N국 복음학교는 벌써 세 번째 참여하고 있어요. 처음 N국 땅을 밟은 것은 작년 6월 복음선교관학교 훈련을 받으면서 아우리치를 가게 되면서예요. 그때 현지인 복음학교에 참여했어요. 현지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주님께서 열방의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저도 그 순수한 영혼들을 마음으로 품게 해주셨어요. 그

후 9월에 있는 현지인 목회자 복음학교에 남편과 함께 불러주셔서 다시 갔어요. 그런데 이전에 만났던 몇몇 분이 저를 알아보는 거예요. 현지인 자매와 너무 반갑게 교제를 하며 주님을 찬양했어요. ‘와, 주님께서는 하나이시구나. 성도를 하나로 만드시는구나.’ 이런 경험을 통해 N국이 마음 속 깊이 심어지게 됐죠. 그래서 다음세대 복음학교가 그곳에서 열린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주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주저 없이 함께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현지인, 목회자, 그리고 다음세대까지 전 세대를 아울러서 저를 그 땅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주님이 그 나라의 많은 영혼들을 복음으로 회복하시는 영광을 보는 시간이었어요.”

- 말씀하시는 그 영광을 어떻게 또 다른 삶의 모습으로 주님이 보여주시는지 궁금해요.

“아들이 전능자의그늘미니스트리(ShAM, 이하 썬)라는 공휴사역을 감당하는 선교단체 선교사로 있어요. 아들 때문에 그 단체를 알게 됐죠. 그런데 아들이 처음 입소 하던 날, 대표 선교사님이 ‘저희는 세 분이 오신 것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들뿐만이 아니라 남편과 저까지도 지칭하는 말이었어요. 그 말이 잊혀지지 않았어요. 아들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저희에 대한 부르심도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말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 되시고 가장 완전한 곳이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섬겨야 하는 자로 부르신 게 아니라 제 영혼을 전능자의 그늘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부르심 같았어요. 그동안 스스로 아이를 잘 돌본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와서 섬기다보니 가장 못하는 영역이었어요. 아이들을 좋아하는 하지만 아주 어린아이는 어렵거든요. 저는 말귀를 알아듣고 반응할 수 있는 2~3세의 아이들을 좋아하는데, 내가 좋은 아이들을 섬기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 이곳에서 가장 할 수 없고 피하고 싶었던 신생아 영역을 섬겼어요. 그러면서 다시 고백하게 됐어요. ‘그렇지, 내가 하는 게 아니지. 모든 섬김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이 일은

하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저 일은 못한다는 게 아니구나!’

복음을 만난 이후 저의 가장 큰 변화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를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이예요. 전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할 수 없는 일은 안했어요. 하지만 복음 앞에 서고 난 후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는 주님을 보게됐어요. 그렇게 해야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말이 정말 자연스럽게 고백되더군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셨어요. 아이를 재울 때에도 ‘주님이 해주세요’ 아이가 밤에 울면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붙들면서 주님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하시려고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는 거죠. 그럴 때는 주님이 하셨다고 입으로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나 썬에서 신생아를 섬기면서 매일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터지는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어젯밤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들과 함께 선교사역을 섬기다

-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는 삶으로 변화시켜주신 복음의 능력이 너무나도 아름답네요. 이 복음을 만나게 된 과정을 나눠주시겠어요?

“사실 저는 모태신앙이었고 믿음의 삶을 산다고 자부했어요. 교회와 집밖에 모르고 살았고, 이게 믿음이라고 확신하며 살았어요. 그러다 저와 남편과 아들, 세 가족이 복음학교라는 신앙훈련을 받게 되었어요. 강의를 듣는데 정말 아찔했어요. 여태까지의 신앙생활이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확신이었다는 것을 직면하게 되었거든요. 자세히는 설명할 수 없겠지만 내 선함과 내 열심이 바로 교만이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뒤통수를 맞는 것 같았어요. 저는 당연히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이대로면 지옥에 갈 수도 있겠다 싶더군요. 저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한 자였어요. 모든 시간에 내 의를 쌓기에 바빴더라고요. ‘이 정도면 됐지. 나만큼 믿는 사람 있어?’ 제 안에 저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깔려 있었어요. 주님이 ‘터’가 아니었고, 내가 ‘터’였어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랐고 소름이 끼쳤어요. 이 복음을 안 들었으면, 나는 지금도 내 의를 밀에 깔고 주님을 섬긴다는 미명하에 나를 섬기며 다른 사람들을 판단했을 것이었어요. 그 뿐 아니라 나 같은 믿음을 강요하고 있었을 거예요. 너무 끔찍했어요. 지금이라도 이 복음을 알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했어요. 다만 지금까지의 내 선함과 열심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한 번도 주님은 없었다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이 긴 세월을 나를 위해 살았다는 게 부끄러웠어요.”

- 가족 모두가 복음학교 훈련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가족들은 어땠나요?

“같이 복음학교를 하게 된 것은 주님의 은혜였어요.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 주셨던 거죠. 사실 그런 학교인 줄 모르고 간거죠(웃음). 끝나고 나서 왜 같이 하게 하셨는지 알게 됐어요. 첫 번째는 아들의 선교사로의 부르심 때문이었어요. 가족이 함께 복음학교를 안했다면, 저희도 사실 반대했을 거예요. ‘아니 왜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해? 사회생활 하면서도 믿음생활 할 수 있잖아.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 해야지, 꼭 그걸 해야만 해?’ 어쩌면 주님이 아들을 부르시기 위하여 우리를 함께 부르신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아이가 헌신의 길을 가겠다고 했을 때, 너

무 당연하게 여겨졌어요. 왜냐하면 세상으로 나가는 게 더 불안했거든요. 저는 내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난 복음으로 살 수 있다고 다짐했었지만, 결코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교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부르신 주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세상에서 보면 부모로서 무책임 해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주님의 부르심 받은 이 아이를 주님께 맡겼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요. 외아들을 향해 걱정이 없다면 그건 거짓말이죠. 그런데 함께 복음 앞에 서고 나서 나의 조금함과 인간적인 근심은 없어진 거죠. 가장 선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주셨어요.”

온 가족이 복음 앞에 서다

그런데 주님께서서는 아들을 통해 우리 부부를 거꾸로 썬으로 불러주시더라고요. 아들만 헌신의 삶이 아니라 우리 부부 또한 헌신의 삶으로 부르시기 위해 온 가족을 복음 앞에 세우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과 제 사이에 큰 변화가 있었어요. 바로 복음을 나눌 수 있다는 거였어요. 사실은 믿음생활을 한다면서도 남 욕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대화들이 전부였거든요. 복음을 나누기는커녕 우리는 믿음생활을 잘 하는데 남들은 못한다는 내용을 나누고 있었더라고요. 복음 앞에 서고 나서부터는 믿음을 나누게 되고, 말씀 묵상 내용을 나누게 됐어요. 썬에서 본 아이들의 변화와 하나님이 이루신 것. 이 이야기 밖에 할 게 없는 삶으로 바꾸셨어요. 그러면서 삶이 단순해지고, 주님의 부르심이다 하면 ‘네’라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믿음의 반응은 순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남편은 이렇게 고백해요. 그냥 감사할 것 밖에 없다고요. 아들을 불러주신 것도,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것도 감사하고. 사실 감사함 그 다음은 없잖아요. 감사한데 불평이 나오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평생 감사할 것 밖에 없는 거죠.” [GNPNEWS]

H.M.

〈뒷 이야기는 인터넷 복음기도신문(gnpnews.org)에서 이어집니다.〉



▶ 아들이 헌신한 선교단체 썬(ShAM)에서 양육하고 있는 어린아이들과 함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영원한 사랑의 복음 (2)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아무 것도 아니다”

현대교회의 모습과 너무도 흡사하게 닮은 교회가 신약 성경의 한복판에 존재했다. 바로 고린도교회다. 우리 보기엔 너무 부끄럽고 민망해서 차마 이 교회를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주님은 고린도교회를 사랑하셨고, 깊은 애정을 보여 주셨다.

고린도교회 안에는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있을 법한 수많은 위기와 문제들이 있었다. 고린도는 타락한 도시문명을 가진 항구도시였다. 당시에 ‘고린도스럽다’는 말이 ‘음탕하다’는 말과 동의어로 쓰일 만큼 고린도는 성적 타락과 도덕적 부패의 상징이었다. 이런 도시에 인간의 이성으로는 상상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졌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한 은혜가 임하여 성령의 은사와 진리의 지식에 부족함이 없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

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하므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고전 1:4-7)

하지만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몸 에 배어있던 이전의 세상 가치와 문화를 벗지 않은 채 교회 안에서 행했다. 그로 인해 교회 안에는 온갖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먼저 분열이 일어났다. 파당이 생겼다. 또 이방인 중에서도 없었던 음행의 문제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난 다툼을 세상 법정으로 가져갔다. 또 복음화 되지 않은 온갖 불의한 일들이 교회 구석구석에 존재했다. 이뿐 아니라 결혼 문제,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 성만찬의 문제, 사도권의 문제, 성령의 은사에 대한 문제, 부활의 문제 등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견(異見)이 분분(紛紛)했다.

문제는 있을 수 있다. 모르면 배



일러스트=노주나

우고 교정하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회 안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 적(敵)이 노리는 것이 있다. 바로 ‘사랑’을 빼앗는 것이다. 사랑은 교회의 생명이며 목적이며 원동력이다. 합당한 이유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패를 지어 서로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다보면 ‘사랑’이 훼손된다.

처음 복음을 받으면 세상과 나는 간 데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인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면 세상도 천지만물도 새롭게 보인다. 원수들이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이룬다. 교회 재정도 늘고, 예배당도 짓고, 사역이 늘어나고, 조직이 갖춰진다. 이 모든 것이 사랑의 열매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얻은 뒤에 사랑을 잃어버리면 사실은 다 헛것이 되고 만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기에 사랑을 잃었다는 말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빠졌다는 말이다.

훌륭한 신학과 화려한 미사여구를 동원한 논리적인 설교를 해도 사랑이 없으면, 게다가 누추하고 구질구질하고 냄새나는 누추한 삶이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능력이 없다면, 아주 매끄럽고 화려한 콘서트처럼 감동은 주지만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쟁과리가 될 뿐이다.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 것도 아니다. 사랑은 있으면 유익하고, 없으면 아쉬운 것이 아니다. 사랑은 교회의 생명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무슨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결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고전 16:14). 현실과 상황에 충실하다보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어떤 문제, 상황에서든 교회가 절대 속지 말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사랑이다! (2017년 5월) <계속> [GNPNEWS]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히브리어로 만나는 복음 (34)

“구해야(גָּאָלָה שְׂאוּל)했음에도...” 한나의 기도가 엘리의 무감각을 뒤흔들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שְׂמוּאֵל)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삼상 1:20)

우리가 성경의 내러티브(narrative)를 읽을 때는 주의할 점이 하나 있다. 그것은 내러티브에 나오는 그 주인공에 깜빡 때려되어 그저 이야기에만 빠져 들어가 진정 역사가의 관점을 놓치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본문을 기록했던 역사가의 그 때 그 시간(then and there)이 사실상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텍스트, 본문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음을 알아야 한다. ‘지금 여기에(now and here)’ 마음을 빼앗긴 나머지 스토리 나열식의 흥미 위주의 스토리 텔

링(story telling)으로 몰아가는 접근을 지양하고 텍스트에 반영된 저자의 관점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를 갖지 못한 여인 한나와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제사장 엘리! 한나의 기도에 주목하고 엘리가 대답을 한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מַעֲמֹד שְׂאוּלָה אֶתְּשָׂא)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삼상 1:17) 타락한 제사장 엘리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보통 소리가 아니었다. 한나의 기도가 엘리의 무감각, 무관심, 무감동의 마음을 깨트리고 불임의 제사장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마지막 사사 시대의 혼돈을 깨고 왕정으로 가는 길목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춘다.

이스라엘 왕정사를 담은 사무엘서를 읽으면 하나님 역사는 어떤 영웅적인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마치 천 위에 한 올 한 올 수를 놓듯이, 이루어진다는 전조를 담고 있다. 이 기도는 단순한 외침의 소리가 아니라 한 인간의 영혼과 민족의 운명 속에 깊이 들어가 잠자는 영혼들을 뒤흔들며 깨우는 강렬한 예언자적인 음성이 이 안에 녹아 스

며들어 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שְׂמוּאֵל)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삼상 1:20)

보통 ‘사무엘(שְׂמוּאֵל)’의 의미를 ‘그(하나님)가 들으셨다’고 잘못 알고 있다. ‘그가 들으셨다’는 이름은 사무엘이 아니라, ‘שמעאל’ (이스마엘)이다. 사무엘은 ‘שְׂמוּאֵל’ (사무엘), ‘하나님의 이름’ 또는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다’라는 뜻이다. 그러면,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하나님의 이름(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논리대로라면 구하였으니 ‘응답 받음’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구하다’라는 단어를 살펴보자.

‘구하다, 요구하다(שָׂאָל, שָׁאַל)’라는 히브리 단어는 여러 개가 있다. 그 중 사무엘서 기자가 자신의 역사 철학을 담아내기 위해 선택 단어가 바로 ‘שָׂאָל(샤알)’이다. ‘응답 받음’은 ‘구하다’의 수동태 형태인 ‘שָׂאָל(샤알)’이 된다.

히브리 텍스트를 보다 정확히 하

복음과기도미디어 Gospel & Prayer Media

온라인 복음기도신문이 새로워졌습니다!
gnpnews.org

온라인 지면 신문으로 매일 새로운 뉴스를 만나보세요. 열방을 어떻게 기도할지? 이 소식의 의미는 무엇인지?

열방의 소식을 전달할 선교지사의 참여도 기다립니다.

- 문의 ☎ 010-6326-4641 gnpnews@gnmedia.org
- 다국어판 운영 중
 - 영어판 english.gnpnews.org
 - 일본어판 japan.gnpnews.org
 - 중국어판 china.gnpnews.org

면,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샤울(שְׂאוּל)’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삼상 1:20)고 해야 맞다. 그러나 그 자리에 ‘샤울’이 아니라 엉뚱한 ‘사무엘’이 온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서 기자의 역사 철학이다. 샤울 대신 사무엘이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위대한

인물로 자리매김을 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사무엘서에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사실 샤울의 이름은 한참 가서야, 삼상 9:2에 등장한다. 참으로 예언적인 역사가가 품어내는 감동의 필치다. [GNPNEWS]

김명호 교수 (복음기도신학연구소 소장)



“속고 속이는 세상에서 거룩함을 어떻게 지키지?”

성도의 삶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악한 자들에 대한 싸움이다. 다양한 일상의 삶에서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고백을 소개한다. <편집자>

“속고 속이는 세상에서 거룩함을 어떻게 지키지?”

“오늘도 백화점에 출근했다. 맘몬의 성지처럼 느껴지는 이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엔 항상 도전이 따른다. 매출이 없는 요즘은, 종종 부정을 선택해서라도 매출을 올리는 일들이 벌어진다. 그들은 오히려 능력과 실력있는 자로 인정받는다. 하지만 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받았다. 난 이곳에서 유별난 그리스도인이다. 주께 맡겨 남을 챙긴다며 비웃음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오직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음이 영화롭게 될 것을 믿는다. 오늘도 작은 것에 충성하며 진리를 바탕으로

고객을 섬긴다.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없어 망하는 것이 제일 비참한 삶일텐데, 나를 그렇게 되도록 버려두지 않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다.” (박경란 성도, 경기 용인)

“예수님 믿으세요!” “난 여자만 믿는다니까!”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전도하러 가던 버스터미널이 있다. 그곳에서 구두를 닦으시는 아저씨를 만나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은 시종일관 복음을 거부하셨다. 예수님 믿으시라고 해도 “난 여자만 믿어요.” 전도지를 드러도 “글씨 읽는 것 정말 싫어한다.”며 완강했다. 2년 후, 그 날도 터미널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아저씨가 밝은 얼굴로 먼저 인사를 건넸다. “나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배가 고파서 한 교회에 가게 됐는데 거기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됐어요.” 2년 전에 그 기도를 잊



일러스트=고은선

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일하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었다.” (송○○ 형제, 충남 서산)

“직장 상사의 짜증에도 평온함을 지키는 법”

“몇 년 전 교회 언니와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그 언니는 어느 날 선

교사로 헌신하고 내 곁을 떠나갔다.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읽기는 계속 이어졌다. 그리고 몇 년이 흘렀다. 며칠 전 목사 본문이 ‘용서하라’는 말씀이었다. 성격이 날카로운 직장 상사가 그날따라 유독 짜증을 많이 부렸다. 그러나 그런 말들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 이후, 놀랍게도 전혀 어렵지 않았다. 예전에 내게서 볼 수 없던 모습이였다. 아!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구나. 신기하고 놀라웠다.” (심예지 자매, 서울 중구)

“거래처의 대답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외국에 본사를 둔 제품의 오퍼(offer)를 받았다. 본사에 문의하니 담당자를 확인해준다고 며칠 기다려 달라고 했다. 연락이 없어 며칠 후 다시 전화를 걸었다. 확인되는 대로 전화를 주겠다고 했다. 또 기다렸다. 전화가 오지 않았다. 이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매일 전화

해보라는 마음을 주셨다. 한 주 동안 매일 아침마다 전화를 걸었다. 드디어 담당자를 알려주었다. 사실 이런 반응은 이전에 나에게선 찾아 볼 수 없는 일이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나의 생각과 판단을 접고 주님께 순종하는 자로 변화시키는 주님의 역사를 보고 있는 듯하다. 주님을 만나고 10여 년의 시간을 주님 없이 설명할 수 없는 시간을 지나며 ‘나’라고 착각했던 ‘나’를 무너뜨리시고 주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나’로 바꾸셨구나. 내 안에 새 창조를 이루신 주님을 찬양한다.” (이지수 집사, 서울 서초) [GNPNEWS]

* 믿음의 글을 받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채택되신 분에게는 본지에서 마련한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gnpnews@gnmedia.org
☎ 070-7417-0408



북한의 1100만 명은 영양부족, 어린이 5명 중 1명은 영양실조

이 시대 가장 고통 받는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 이 코너는 한반도의 부흥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이에서 고통 받는 이웃, 북한의 기독교인들과 주민들에 대한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편집자>

북한에서는 ‘의식주’라는 표현을 ‘식의주’라고 쓸 만큼 먹는 문제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최근 전했다. 북한은 2013년 개정된 헌법 제25조에서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 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해준다.”고 규정했다. 사실상 국민의 식의주를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맹세했지만, 북한 주민들의 배고픔은 여전하다.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에 따르면 북한 전체 인구의 40%에 달하는 1100만 명이 영양부족상태에 있으며 어린이 5명 중 1명이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국제사회는 천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기아 선상을 헤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는 듯 북한 외무성은 2월 22일 유엔에 식량원조를 요청했다. WFP의 데이비드 비슬리 사무총장은 대북 식량 원조에 동참해달라고 미국과 서방국가들에 호소했다. 그런가하

면 북한과 이웃나라인 중국은 이미 울여름 북한에 대규모 식량난이 발생해 탈북 난민이 대량 들어오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국경 지역에 최첨단 5세대 이동통신 장비를 이용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북한은 자신들의 식량난의 원인을 유엔의 대북제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아무 결실 없이 끝난 다음 북한 리용호 외무상은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의 제재를 해결해 달라고 미국에 요구했다. 이에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 폐기하기 전에는 대북제재를 풀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리 외무상의 발언은 유엔의 대북제재가 북한 인민경제 발전에 막대한 해를 끼치는 것처럼 비쳐졌다.

대북제재로 가장 타격입는 층은 일반 주민 아닌 북한 핵심군중

자유아시아방송은 최근 평양을 떠나온 한 북한 주민의 말을 인용, “현재 북한의 공장 기업소가 대부분 가동을 멈추었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생산된 물건을 달러로 결제할 수 있는 단위는 그럭저럭 가동되지만, 그 외 국가 계획에 따라 물건을 바치던 단위는 멎었다.”고 말했다. 결국 개인들이 돈을 투자



▶ 평양 외곽에서 쌀 농사를 짓는 북한 노동자들(출처: npr.org 캡처)

해 이윤을 창출하고, 그 돈으로 다시 재투자하는 단위들은 살아남았지만, 국가에서 주는 지령을 받아 수행하던 기업소는 멈추었다는 것이다. 또한 일반 북한 주민들은 장마당의 의존해 살고 있기 때문에 잘 먹지는 못하지만, 굶지는 않는다고 탈북민들은 지적했다. 대신, 대북제재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은 노동당과 권력기관 등 북한 핵심군중이라고 말했다. 대북제재가 길어질수록 노동당에 대한 주민들의 충성도가 약화되고 국가통제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WFP에 따르면, 다가오는 식량 대란을 막기위해 북한이 요청한 식량규모는 140만 톤이다. 그리고 굶주리고 영양실조에 걸린 어린이들을 구제하자면 1억 2000만 달

러가 필요하다. 하지만, 유엔이 각국 정부와 국제사회에 대북식량지원을 호소해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때문에 호응이 뜨겁지 않다. 북한에 대한 식량원조가 이뤄지더라도 미국의 참여가 결정적이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 비용을 주민을 위해 사용한다면 유엔이 책정한 1억 1100만 달러에 달하는 대북인도주의 지원금을 스스로 충당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한 외신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이 불법적인 핵무기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자국민을 착취하고 굶주리게 만들었다며, 북한 정부가 자국민의 복지를 위해 보다 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다시금 강조했다. [GNPNEWS]



영광스러운 역설(逆說)

‘진정한’ 그리스도인. 거둬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거둬남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 되고나면 이전의 삶과는 아주 다른 삶을 산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삶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된다. 이런 삶은 과거의 삶과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종종 불신자들의 눈에 이상하게 비친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관점으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이해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에게 영광스러운 역설(逆說)이 있다. 그는 죽었지만 영원히 산다. 그는 자신에 대해 죽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그가 영원히 사는 까닭은 다른 분(예수님)이 그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다. [GNPNEWS]

<HOLY SPIRIT(2006), A.W.토저>



새전라북도 선교캠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새전라북도 선교캠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_마태복음 24:14

- 일 시** 2019년 5월 15일(수) ~ 5월 18일(토), 합숙
- 장 소** 광전리선교센터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송산로 679번길 16)
- 대 상** 누구나
- 접수기간** 4월 17일(수) ~ 4월 26일(금)
- 접 수** 전화접수 070-4144-0104
- 참 가 비** 현금
- 주 강 사** 김용의 선교사



LOG Mission Fellowship